

올해의 조선어 신조어 238 개 심의 통과

2024 중국조선어신조어규범심의회의 장춘서

2024년 중국 조선어 신조어 규범 심의 화상회의가 12월 12일 장춘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민족단결진보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을 학습, 전달하였다.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장성(张诚)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언어 문자는 뚜렷한 국가 속성, 정치 속성과 문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상으로 볼 때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 수요로서 민족 언어 문자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군중들의 권리를 존중,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문화상으로 볼 때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국가의 문화 안전을 수호하는 사회 수요로서 우리 나라 민족정책 리념, 민족문화의 자신감을 전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법치상으로 볼 때 언어 문자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법에 의해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객관적 수요이며 민족사무 관리 체계, 관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언어 문자 사업은 시종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하고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

신가원을 구축하는 데 봉사해야 하며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문화 기호와 중화민족 형상을 더 뚜렷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러 민족의 '다섯가지 인정'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봉사해야 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화 발전에 봉사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해야 한다. 민족지역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위해 봉사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에 언어 문자 사업의 힘을 보태야 한다.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해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를 구축하는 주선을 확고히 하며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을 착실하게 하여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료녕, 길림, 흑룡강 및 북경 등지의 규범 전문가 30명이 참석해 시사정치(时政), 교육, 과학 기술, 생산과 생활 등과 관련한 238개의 신조어를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최종 심의 통과된 신조어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최화기자

평극 · 월극 · 예극 · 황매극... 우리 나라 지방극 360 여종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는 다양한 지방극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360여종의 지방극이 있는데 그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극(评剧), 월극(越剧), 예극(豫剧), 황매극(黄梅剧), 월극(粤剧) 등을 꼽을 수 있다.

평극은 하북성 당산에서 발원해 북경, 천진, 화북, 동북 지역에서 유행되었다. 평극은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생활적인 분위기가 다분한 특징이 있다. 유명한 배우로는 소백옥상(小白玉霜), 신봉하(新凤霞) 등이 있으며 〈진향련〉(秦香莲), 〈꼬마사위〉(小女婿), 〈류교아〉(刘巧儿) 등 극목이 대표적이다.

월(越)극은 절강 소흥에서 발원해 절강, 강소, 강서, 안휘, 상해 등 지역에서 유행되었다. 최초에는 남녀 배역 모두 남자배우가 연기했지만 20세기 30년대부터 전부 여자배우가 출연하게 되었다. 월극은 노래가락이 부드럽고 연기가 섬세하여 경극에 버금가는 전통극으로 꼽힌다. 유명한 배우로는 원설분(袁雪芬), 왕문연(王文娟), 서옥란(徐玉兰) 등이 있으며 〈량산백과 축영대〉, 〈홍루몽〉 등 작품이 대표적이다.

예극은 하남성의 지방극이다. 하남 방자(梆子), 하남 고조(高调)라고도 부르는 예극은 하남과 린근 지역에



▲ 월(越)극 〈홍루몽〉의 공연 무대

서 유행되었다. 예극은 노래가락이 우렁차고 활발한가 하면 처량하고 구성진 일면도 있다. 유명한 배우로는 상향옥(常香玉), 마금봉(马金凤), 우득초(牛得草) 등이 있으며 〈화목란〉, 〈중수가 된 목계영〉, 〈침품 미관말집〉 등 작품이 대표적이다.

황매극은 안휘성의 지방극으로 황매조(黄梅调)라 부르기도 했다. 안

휘성과 강서, 호북의 일부 지역에서 유행한 황매극은 가무가 흥겨우며 노래가락이 부드럽고 심금을 울리며 연기가 소박하고 아름다우며 생활적 분위기가 다분하다. 〈천선배〉(天仙配), 〈녀부마〉(女驸马), 〈견우와 직녀〉 등 극목이 유명하다.

월(粵)극은 광둥성의 지방극으로 주로 광둥, 광서, 복건 남부 일대에서

유행되었다.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대양주에 사는 화교와 향향, 오문 사람들도 월극을 즐겼다. 광둥어로 노래하는 월극은 독특한 풍격을 형성했으며 유명한 배우로는 홍선녀(红线女), 마사증(马师曾) 등이 있고 대표적 작품으로는 〈서원(书院)을 수색하다〉, 〈관한경(关汉卿)〉 등이 있다.

/ 국제온라인

제 6 회 해남도 국제영화제 , 4,330 부 영화 경쟁

제6회 해남도 국제영화제 폐막식 및 시상식이 지난 10일 저녁 샴아시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총 117개 나라와 지역의 4,330부의 영화가 이번 영화제 '황금코코넛상'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영화, 단편영화 등 세계 경쟁부문에 출품해 최우수 영화상과 심사위원회 대상, 감독상 등 10개 상을 겨뤘다.

최종 그루지야 영화 〈신의 전화〉가 '황금코코넛상' 대상, 세르비아 영화 〈78 일〉이 심사위원회 대상, 레티시아 도슈 프랑스 배우 겸 감독이 영화 〈법정에 선 개〉로 감독상, 엘버터 펠마 배우가 배우, 칠레 합작 영화 〈스로우 락스 앤드 클라우즈〉로 남우주연상, 프레티 파니 그레히 배우가 인도,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합작 영화 〈겔스월비 겔스〉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그의 동자건이 메가폰을 잡고 류호연, 동자건이 주연한 중국 영화 〈나의 친구 안드레이〉가 중화권기여상과 시각효과상을 받고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합작 영화 〈흔들리는 그림자〉가 다큐멘터리상;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합작 단편 〈복스 휴메나〉가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제 6 회 해남도 국제영화제 '황금코코넛상' 심사위원장인 퓌 베송 프랑스 감독은 "이번 황금코코넛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모두 훌륭했다."며 "가장



▲ 중국 영화 〈나의 친구 안드레이〉의 한 장면. 중화권기여상과 시각효과상 수상.

중요한 시상 기준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감으로 관객들을 작품의 감정 세계에 빠지도록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배우의 완벽한 소화, 감독의 임팩트한 영화 표현력 역시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

분들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처음으로 '푸른 코코넛 프로젝트' 벤처 자본 캠프를 개최하여 청년 감독의 단편 촬영을 지원하고 입선 후보를 위한 자금 지원, 촬영장면 무료 체험, 전 과정 후반작업, 베테랑 영화인의 전문지도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영화제 기간 5부의 우수한 중국 영화 및 드라마가 영화, 드라마 해외 진출 계약을 체결해 해남도 국제영화제의 첫 국제 저작권 거래 사례가 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황금코코넛 포럼, 영화 대사 모임, 에스빠나 영화 주간, 아세안 부문 상영 등 이색적인 행사도 개최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 야외 상영 활동은 판도를 확대하여 해남성의 4개 시, 현의 해안과 모래사장, 수영장, 산정상, 목지, 도시 숲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영화와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융합시킴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했다.

/ 국제온라인

해림 석인동 유적지에서 9 만여점 석기 출토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해림시 해림진 석하촌 동쪽에 위치한 석인동 유적지에서 중대한 고고학 발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석기 9만여점이 출토되었다.

석인동 유적지는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가 2023년에 해랑하 류역 석기

유적지를 조사할 때 발견한 것으로 부지면적이 1만 6,200 평방미터에 달한다. 석인동 유적지의 지층은 지금으로부터 약 5,700 년전의 신석기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는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거쳐 올 4월부터 11월

까지 석인동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세 곳의 발굴 구역을 설치하고 9만여점의 석기를 출토했다.

해랑하 류역은 중국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구석기 유물 분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의 하나로서 전체 구대륙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석기 타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고고학 발굴은 해랑하 류역의 부동한 시기 고인류의 석기 기술, 생산 생활 등을 연구하는 데 대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인류의 기원과 이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흑룡강일보

빠리 노뜨르담 대성당 5 년 만에 재개방

- 프랑스의 유명 랜드마크



▲ 새로 개방된 빠리 노뜨르담 대성당의 외경

현지시간으로 12월 7일 저녁, 빠리 노뜨르담 재개방식이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랜드마크인 노뜨르담은 2019년 4월 15일 한차례의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5년간의 복원 끝에 마침내 참신한 모습으로 센강가에 다시 우뚝 서게 되었다.

'복원'후의 노뜨르담 대성당은 어떤 모습일까?

전통기술 + 현대기술

건물의 위풍 재현에 일조

지난 5년간 2,000여명 장인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7억유로를 들여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로 노뜨르담을 '복원'했다.

디지털화를 통한 복원

사실 노뜨르담은 원 모습대로 완전히 복원될 수는 없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

2015년 예술사학자 앤드류 탈론은 레이저 스캔을 사용하여 노뜨르담의 10억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록하여 상세한 디지털 서류를 만들었다.

또한 현대적인 3D 인쇄기술이 조각 세부사항의 재조각과 손상된 유물의 복원에 널리 사용되었다.

전통 기예와 현대화 개조가 공존

첨단과 지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원팀은 19세기 원 디자인 도면을 엄격하게 따르고 전통적인 기술을 모방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뜨르담의 복원은 력사의 재현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화적인 개조도 병행했다.

국제적 지원 및 다학과 협력

노뜨르담의 복원은 전세계 나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50개 국가의 34만명 인사들이 8억 4,600만유로를 모금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력사학자, 예술가, 복원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복원사업의 전면성과 과학성을 보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노뜨르담을 방문하고 복원팀은 '불가능한' 임무를 완성했다고 찬사했다.

주목할 것은 우리 나라는 노뜨르담 복원과 관련해 프랑스와 정부간 합의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2019년 11월 6일, 중국과 프랑스는 북경에서 협의서를 체결하고 빠리의 노뜨르담 대성당 복구와 관련해 협력을 진행했다. 올해 5월, 중국과 프랑스는 빠리의 노뜨르담과 진시황 제릉의 목질 유물과 토유적 보호 연구를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예약 참관 지침

12월 8일부터 빠리 노뜨르담은 다시 대중들에게 개방되었다. 전세계 관객들은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현장에서 이 보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 빠리 노뜨르담 대성당의 내경

불바다에서 다시 살아난 '삼림'

노뜨르담의 나무 지붕은 약 1,300개의 목조 트로 구성되며 '삼림'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한 후 복원자들은 프랑스에서 수천그루의 참나무를 찾아 수작업으로 새로운 '삼림'을 만들었다.

새 지붕은 력사적인 모습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분수 장치와 격리층을 추가하여 화재 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분당 내부, 어둠 밀어내고 새 생명 꽃피워

5년전, 세찬 불길 속에서 노뜨르담의 분당은 어둠에 가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먼지와 연기 그늘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4만 2,000평방미터의 석재가 새롭게 단장되었다.

불빛 속에서 석회암은 수백년전의 원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벽, 기둥, 불수강 채색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조각 예술품 새롭게 변신

5년전의 화재로 중세기의 지붕 트러스(桁架)가 소실되었고 납으로 만든 지붕이 녹아내렸으며 큰 파이프 오르간은 독성 먼지로 뒤덮였다. 여러차례 해체, 정리, 조정을 거쳐 8,000개의 음관이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